

## 郷校와 書院의 祭禮에 따른 祭需에 관한 연구\*

윤 숙 경

안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998년 9월 4일 접수)

### A Study on the Ritual Foods according to Various Sacrificial Rituals in the Hyangkyo and the Seowon\*

Suk Kyung Yoo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Andong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September 4, 1998)

#### Abstract

1. Both the festival held in Confucian temple to honor Confucius or a religious ceremony in Korean traditional lecture-hall are the sacrificial rituals which is the mark of the respect for preschoolers and these rituals has been followed the rules written in the book, 'Yaegi'.
2. For the Food formal display for the festival in Confucian temple of Chinese Gukjagam, Pebak(clothes), Mohyul(hair and blood), and the ritual food dishes, such as Byun 10, Doo 10, Gang 3 (Deung 1, Hyung 2), Bo 2, Gue 2, Jo 3 (Taeraeu as beef dish 1, Soraeu as sheep and pork dishes 2), Joo(alcohol) 3 were displayed, while in Juhyunhak, Byun 8, Doo 8 were displayed. In Taesangji edited around in 1873 in Korea, for the Confucian shrine Pebak, Mohyul, Byun 10, Doo 10, Deung 3, Hyung 3, Bo 2, Gue 2, Jo 6 (raw 3, cooked 3), Joo 3 were displayed. In pedantry Confucian temple, Pebak, Byun 8, Doo 8, Bo 2, Gue 2, Jo 2 (raw sheep and pork), Joo 3 were displayed while Mohyul was omitted, which this type of display was almost identical through the nationwide survey for the Confucian food display. Some of the Confucian food display, most of the display for Bo and Gue have been changed to Bo 1 and Gue 1, and one fifth of the Confucian display for Byun and Doo also has been changed in the numbers and food varieties.
3. In most of the sacrificial ritual food display in the Korean traditional lecture-hall, Pebak (some not applicable), Byun 4, Doo 4, Bo 1, Gue 1, Jo 1 (raw), Joo 1 were displayed. In these days, the number of the Confucian temple where the sacrificial rituals is not held, has been increased.
4. For the names of food for the Byun and Doo dishes, mostly the old names are used, however, minor changes in materials and cooking method have been found.

#### I. 머리말

인류는 옛날부터 하늘과 땅 산천 바다 그리고 조상의 넋 등을 제사하는 풍속이 있었고 이것이 제례나 축제 같은 것으로 민족과 종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이러한 의식절차(儀式節次)에는 일정한 규범이 있고 신전에 바쳐지는 제수(祭需)도 나름대로 규범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위시하여 동양의 유교문화권에서는 제사를 치국(治

\* 본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작성되었습.

國)의 요도로 하고 인도(人道)의 교의(教義)로 하였으며 제사를 예(禮)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았다<sup>1)</sup>. 출생을 비롯한 관혼상제의 통과례를 가족과 가문을 단위로 한 가례(家禮)라고 한다면 전통사회에 있어 향당(鄉黨)의 예속(禮俗)인 석전의례(釋奠儀禮)와 서원(書院), 사우(祠宇)의 향사(享祀)는 한 지역사회내지 한 고을을 단위로 하는 예속을 뜻한다. 사가의 일반기계에 비하여 지역 사회민의 공동으로 올리는 제는 조선 시대에 관학인 성균관의 문묘와 지방의 향교 그리고 사학인 서원과 사우(祠宇)에서 선사에 대한 제향이 거행되어 왔다. 성균관 석전의 진설도나 제수와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성균관에서 발간된 『문묘의례집(文廟儀禮集)』<sup>2)</sup>과 『국조오례의』<sup>3)</sup>, 『태상지』<sup>4)</sup> 『조선왕조의 제사음식문화』<sup>5)</sup> 등에 상세하게 기록되었고 그 외 의례진행과정등도 서<sup>6)</sup>와 김<sup>7)</sup>이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석전의 근원부터 이해되어야 하기에 본 연구를 위해 중국 곡부(曲阜)에 있는 공묘(孔廟), 공부(孔府), 공림(孔林)과 곡부사범대학 부설 孔子文化院을 방문하여 석전전담교수(駱承烈)를 면담하였으며 『孔子文化全集』 중 『성문예지』<sup>8)</sup>, 『문묘예악고』<sup>9)</sup>를 구하였고 北京에서는 역사박물관에 제기의 출토과정을 검토할 수 있었다.

禮의 시작은 음식에서 비롯된다 <예기: 禮運篇<sup>10)</sup>>고 하듯이 음식을 통해 질서와 신분이 생겨났음을 의미한다. 음식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은 바로 해당신분의 삶의 존재양태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sup>11)</sup>. 따라서 특히 제례의식의 형태가 큰 변동 없이 오늘에 내려온 것과 같이 제례음식도 큰 변동이 없으리라 생각하며 음식물의 경우 그 시대의 종묘나 석전제사에 올리는 음식물에서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되므로 중국에서 전수하여온 석전제사에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잔존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전통있는 향교와 서원의 제례음식을 상고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 론

### 1. 문묘의 성립과 석전

#### 1) 선성(先聖), 선사(先師)

고대 중국에서는 학문이나 도덕적으로 후학의 스승이라 할 분을 사후 태학에 선사로 모시고 석채례(釋菜禮)를 올렸다.(先師 師古曰前學之師也 漢書注. 始入學者必 釋菜禮先師也. 周禮<sup>12)</sup>. 주(周)시대에는 순(舜), 우(禹), 탕(湯), 문왕(文王)을 선성(先聖)으로 모셨고

한 명제(明帝 57-75)때에는周公(周公)을 선성, 공자를 선사로 하였고 당의 정관 2년(628)에 공자를 선성, 안회(顏回)를 선사로 하였다가 개원 27년(789) 공자를 문선왕(文宣王)으로 추시(追諡)하였으며 송(宋), 원(元)도 여기에 따랐다. 명 가정 9년(1530)에는 지성선사(至聖先師)로 부르게 되고 청(淸)도 여기에 따랐다<sup>9)</sup>.

#### 2) 유학의 전래와 향교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석전을 하게 되었는지 명확한 기록은 볼 수 없으나 태학의 설립이나 공자와 상의 도래 등으로 그 시기를 추측할 뿐이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372)에 전진(前秦)의 제도를 모방해서 태학을 설립하였고 백제는 근수구왕(375-383)때 왕인(王仁)이 일본에 논어(論語)를 전한 기록이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나와있다<sup>13)</sup>. 신라는 성덕왕 16년(717)에 중앙관립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립하였으며 왕자 김수충(金守忠)이 당에서 공자와 10철, 72제자의 화상을 들여왔다<sup>13,14)</sup>. 고려때는 성종 8년(989) 송의 국자감의 예에 따라 72현의 도상(圖像)을 국학의 벽에 걸어 놓고 향사(享祀)하였고 안향(安珦)은 충렬왕을 호종하여 원의 연경(燕京)에 갔다가(1288) 귀국할 때 주자전서(朱子全書)를 가져왔다. 현종13년(1022)에 설총(薛聰)<sup>14)</sup>을 예종 11년(1116)에 최치원<sup>15)</sup>을 문묘에 배향하였으나 충정왕 3년(1351)에 두 분의 배향을 삭거하였다<sup>15)</sup>. 그러나 얼마후 다시 배향되었고 조선 중종 12년(1517)에 정몽주가 승무(陞庶)되어 설총, 최치원, 안향, 정몽주로 우리나라 유현 4위가 종향되었다<sup>16)</sup>. 조선시대에는 태조 7년(1398)에 지금의 명륜동에 성균관을 세우고 부설한 대성전에 공자와 4성, 10철, 송 6현을 모시고<sup>13)</sup> 춘추중월 상정일에 석전을 했다<sup>17)</sup>. 왕이 친향(親享)하는 향문선왕시학의(享文宣王視學儀)를 비롯하여 작헌 문선왕시학의(酌獻文宣王視學儀), 왕세자석전문선왕시학의(王世子釋典文宣王視學儀), 왕세자문선왕입학의, 유사석전문선왕의, 주현석전문선왕의 등 여러 석전이 거행되었다. 현재는 성균관의 정전인 대성전에 공자와 4성, 10철, 송 6현과 우리 나라 유현인 동유(東儒) 18현으로 39위를 종향하고 춘추중월상정일에 석전을 거행하고 있다. 1997년에는 춘기석전을 공부자 기일인 음력 4월 11일, 추기 석전은 공부자 탄강 기념일인 음력 8월 27일일에 각각 봉행했으나 유럽의 반대로 1998년에는 원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관학으로 지방 교육기관인 향학(鄉學)은 통일신라시대의 학원(學院)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태조 13년(930) 서경(西京평양)에 서경학교를 설립한 것이 고려의 지방 관학의 시초인 것이다<sup>16)</sup>. 향학의 중요시설인 문묘와 강

학당(講學堂)인 명륜당(明倫堂)이 한 건물 안에 있었으나 충목왕 2년(1346)에 분리 설립하였다. 조선초기부터 수령(守令)의 책임 하에 지방마다 향학을 세우고 문묘를 함께 설치토록 하여 향교라 하였다. (國家於各道州府郡縣皆置文廟謂之鄉校: 世宗實錄)<sup>16)</sup> 국학인 성균관은 소과(小科)에 합격한 사람만이 입학할 수 있었으며 향교는 과거를 준비하는 기관으로서 한문(漢文)의 기초교육을 담당한 서당(書堂)보다 한급 높은 중등 교육기관인 동시에 사전(祀典)과 지방민의 유교에 입각한 민풍순화와 교화등에 힘썼다. 향교의 사전은 문묘제의 뿐만 아니라 사직단(社稷壇), 성황사(城隍祠), 여단(厲壇)의 제례도 함께 주관하였으며<sup>16,18)</sup> 향교의 운영은 수령의 감독과 책임하에 지방사립(地方士林)과 공동운영을 하였다. 향교에는 향교전(鄉校田)과 노비가 속해 있었으며 지방관부(地方官府)의 재정지원도 있었다.

### 3) 석전전례(釋奠典禮)

석전은 태학에 설치한 문묘(文廟)에서 공자를 비롯한 여러 유현을 모시고 제사하는 전례를 말한다.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春秋仲月上丁日)에 행례한다. 문묘 제례악과 팔일무(八佾舞)를 행하고 폐백(幣帛), 진찬(進饌), 헌작(獻爵)을 하는 제전이다<sup>29,12)</sup>.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관학으로 성균관과 지방에 향교가 있었으며 중앙에는 고려말부터 사학(四學)이 있었으나 사학에는 문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성균관과 전국 234개소의 향교에서 석전을 하고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산천(山川)과 묘사(廟社)와 선사(先師)에 대해서도 석전의 전례(典禮)를 하였으며 선성선사(先聖先師)의 호칭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자한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뜻의 의미가 축소 고정됨과 같이 석전의 뜻도 공자와 배향된 유현에 대한 전례(典禮)로 한정된 뜻으로 굳혀졌다<sup>12)</sup>. 배향되는 유현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르며 그것은 그 시대의 학문적 정치적 영향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되며 공자 호칭의 변동도 여기에 비추어 생각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한 고조(高祖 BC 206-195)가 노(魯)나라를 지날 때 태포(太牢)로 공자를 제사했고 명제(明帝 57-75)는 공자와 제자 72위를 제사하는 등 유교의 융성과 함께 제사가 성대해 졌다<sup>12)</sup>. 한초(漢初) 노나라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의례절차를 정하고 사제가 전수하여 이어 갔으나 훗날 쇠퇴된 것을 주희(朱熹 1130-1200)가 성묘예제(聖廟禮制)를 연구 복구하고 예기(禮器: 제기)를 다시 만들고 석전의주(釋奠儀注)와 예기도식을 저술하고 상주하여 간행하게 하였다<sup>89)</sup>. 명의 홍무 7년(1374)

에는 성묘(聖廟)를 위해 전속으로 유동(儒童)을 선발하여 옛날대로의 절차를 교육시켜 제사하게 하였다<sup>8)</sup>. 수(隋)의 문제(文帝) 개황원년(581)에는 4중월상정일(四仲月上丁日)에 치제(致祭)하였으나 명(明) 홍무원년(1370)에 춘추중월상정일에 제사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9)</sup>.

### 4) 석전(釋奠)과 석채(釋菜)

석전은 시례(尸禮: 시동(尸童)을 세우고 하는 예)와 그 이후의 의례가 없는 제사의 좀 간략한 전례이다. (釋奠者設薦饌的奠而已無迎尸以下事: 禮記注)<sup>10)</sup> 매월 초하루에 하는 석채를 사채(舍菜)라고도 하고 빈번(蘋蘩: 마름과 다복쑥, 변변치 않은 제물)종류를 놓고 선사에게 올리는 전례이며 예로서는 가벼운 것이다. 구양수(歐陽脩 1007-1072)는 학교를 설립할 때나 사시(四時)에 하는 예전도 석채를 했으며 석전은 음악은 있으나 시례가 없고(有樂無尸) 석채는 음악도 시례도 없는(無樂無尸)것이므로 더욱 간략한 것이다(略矣)<sup>12)</sup>라고 말하고 있으며 『문묘예악고』<sup>9)</sup>에는 석전은 음악이 있으나 석채는 음악과 폐백과 생이 없으며 제(稊 피), 근조(芹藻), 빈번(蘋蘩)을 올릴 뿐이다라 하고 있다. 석채는 옛날에 생을 쓰지 않았으나 명 헌종이 성화 1년(1465)에 석채에 생을 쓰고 부터는 현재까지 대제(大祭)가 아닌 석채에도 생을 쓰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향교석전은 음악이 없으니 석채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2. 제수(祭需)

### 1) 중국의 제수

석전의 제품에는 폐백과 제향(祭饗)이 있다. 석전에서 (1) 폐백은 백색이며 길이 1장 8척(一丈八尺)<sup>9,19)</sup>이다. 문묘의 석전뿐만 아니라 종묘사직, 해악(海嶽), 독(瀆 하천), 선농(先農), 선잠(先蠶)등의 제례때도 전폐(奠幣)를 하였다. 빛깔은 사직, 선잠, 독은 흑색이고, 산과 바다는 위치하는 방향에 따른 오방색(五色)이며 선농은 청색이며 이외의 제신의 폐는 백색이다. 모든 폐백의 길이는 예기척(禮器尺)으로 1장 팔척이다<sup>18,19)</sup>. 예기에 선성, 선사의 석전에는 반드시 폐백을 올리고 전례하라고 하고 있다. 중국의 『문묘예악고』에는 정위(正位)와 사성, 10철과 양무(兩廡)의 중향위(從享位)에게 전폐(奠幣)하고 한국의 『국조오례의』에는 정배위(正配位)에만 전폐하고 있다.

(2) 생(牲)은 옛날 중국에서 위로는 황제로부터 아래는 대부에 이르기까지 제사에 썼다. 생은 제신(祭神)

과 제향자(祭享者)의 신분과 제례의 격에 따라 생의 종류와 수에 차가 있었다<sup>10)</sup>. 공자묘의 생은 한의 항제(恒帝 146-167)는 우(牛), 양(羊), 시(豕)로 하고 당의 고종(高宗 649-683)은 소(小牢: 양, 시)로 하였고, 당의 현종(玄宗 712-756)은 태뢰(太牢: 牛)로 하였으며, 명의 세종 가정 9년(1530) 이후부터 국가감에서는 태뢰(검은 소)와 소(小牢: 양, 시)로 하였고 주현학(州縣學)에서는 양과 시의 소리로 하였다<sup>9)</sup>. 모혈(毛血)을 바치는 것은 희생의 생체(牲體)내외가 온전한 것을 신에게 고유(告由)하는 것이다. (毛血告幽全之物: 禮記郊特牲)<sup>10)</sup> 모혈은 중국의 『문묘예악고』<sup>9)</sup>의 국가감 석전에서 정배위와 종향위에 바쳐지고 『국조오례의서례』<sup>19)</sup>에는 문묘의 향문선왕시학의에서 정배위에 바쳐진다. 희생으로 머리를 바치는 것은 양(陽)에 속하는 혼(魂)을 제사(祭祀)함이다. (升首報陽: 禮記郊特牲) 날고기(腥)를 쓰는 것은 생기를 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血腥爛祭用氣也: 禮記郊特牲) 익힌 것보다 익히지 않은 원초적인 것을 더 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郊血大饗腥三獻爛一獻孰: 禮記 禮器).

(3) 제주는 시대에 따라 진설도가 다르다. 당제(唐制)는 예제(醴齊), 양제(盎齊)를 단상에 진설했고 송, 원제는 단상에 범제(泛齊)와 예제를 단하에 양제, 제제(醴齊), 침제(沉齊)를 진설했다. 예기에서 술에 물을 타는 것은<sup>8,18)</sup> (凡齊皆加明水酒皆加玄酒各投逐尊之上尊: 陳設圖)<sup>18)</sup> 음에 속하는 백(魄)을 제신함이다. (祭齊加明水報陰也: 禮記郊特牲). 제사는 혼백(魂魄)을 제향하는 것이며 혼은 하늘로 돌아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가니 음과 양의 이치에 따라 하는 것이다.

명수(明水)와 현주는 물이다. 태고때 술이 없어서 물로서 술을 대신하였으며 술이 생긴 이후에도 물을 쓰는 것은 옛날을 잊지 않은 까닭이라고 예기소(禮記疏)와 의례소(儀禮疏)에서 말하고 있다. 또 의례소에서는 명수(明水) 세수(洗水) 현주(玄酒)는 물이며 각자 사물에 따라 붙인 이름이다. 명수는 물에 킸 달을 마주 보고 길은 물이며 세수는 새로 갓 길어온 물이고, 현주는 그 빛깔에 의해 부른 이름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예기집해(禮記集解: 孫希旦)에서는 현주는 울창(鬱鬯: 울금향 또는 울금향초를 삶아 우린 물)이다. 울창을 명수에 섞어 술향아리에 담아 오제(五齊)로서 진설하니 울창을 현주라 하는 것이더라고 하였다.

※ 오제(五齊): 제사에 쓰는 다섯가지 술이라고 말하며(周禮) 제(齊)는 제사가 있을 때마다 때맞추어 술을 빚음을 말한다. (周禮注), 예제(醴齊: 감주), 범제(泛齊: 동동주), 양제(盎齊: 탁주), 침제(沈齊: 청주), 제제(緹齊: 홍주, 槽下酒)가 있다(中文大辭典).

명나라때는 운뢰준(雲雷尊), 희준(犧尊), 상준(象尊),

산뢰(山罍)를 썼다고 하나 어떤 술을 담았다는 언급이 없다. 청나라 때는 청주와 울금향을 달인 물을 썼다고 『성문예지』<sup>8)</sup>에 기록되어 있다.

(4) 제기는 옛날 중국의 제기인 보(簋), 궤(簠), 변(邊), 두(豆), 형(鉶), 등(登), 조(俎), 준(尊)에 제수를 담았고 현재도 여기에 담아 제사한다. 중국 답사 중 북경의 역사 박물관의 씨족부락사회(BC 5000-4000) 출토 유물에서 흑도두(黑陶豆)와 흑도궤(黑陶簠)가 신석기시대 양저문화(良渚文化)에서부터 나타났으나 두는 고배인 접시 또 궤는 굽은 낮았지만 등근 큰 접시였다. 春秋(기원전 770-476년)시대 동(銅)으로 된 두와 궤, 정(鼎)이 출토되면서 운두가 깊어지고 이때부터 동(銅)의 보(簋)가 등장하고 夏-春秋時期的 각족(各族)(기원전 21C-기원전 476년)시대에 도두(陶豆)와 동작(銅爵)과 동궤(銅簠)가 전국(戰國)시대를 거치면서 확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기가 성군관 석전의 제기에도 그대로 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5) 제찬은 등(登)에는 태갱(太羹)을 형(鉶)에는 화갱(和羹)을 담았다. 『문묘예악고』<sup>9)</sup>에 의하면 당 무덕 2년(619)에 국학인 국가학(國子學)의 정위(正位)에만 갯이 있고 종사위(從祀位)나 부주현학의 석전에는 갯이 없고 그 이후의 기록에도 갯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남송 소흥 7년(1137)에 문선왕전(文宣王殿)의 석전에 등 1 형 3의 갯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송대에는 석전에 갯을 별로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보(簋)는 서직(黍稷)을 궤(簠)는 도양(稻粱)을 담는 그릇이다. 석전에 진설된 보궤의 수는 일정하지 않으며 당 고종때(619)는 국가학의 정위와 종사위에 보 1 궤 1이 었으나 주현학(州縣學)에는 보 2로 되어 있다. 원 세조때는(1344) 정위에 보 2 궤 2이고 종사위에는 보 1 궤 1로 되어 있다.

변(邊)에는 조(棗), 울(栗), 녹포(鹿脯), 병(餅) 등 마른 것을 두(豆)에는 저(菹)나 해(醢) 따위의 젓은 것을 담았다. 당 시대부터 국가적인 제례에는 그 격에 따라 변 두의 수를 달리 했고 당제에서 대사(大祀)를 변 12 두 12, 중사(中祀)는 변 10, 두 10, 소사(小祀)는 변 8 두 8로 했다. 석전도 제례의 격에 따라 여기에 따르고 있으며 가정(嘉靖)이후 국학의 석전은 중사에 주현학의 석전은 소사에 해당시키고 있다. 가정예제에서 가장 기본인 변 1 두 1 양식은(문묘 양무 석채 진설도)<sup>9)</sup> 매위마다 변에 양포(羊脯), 두에 청저(菁菹), 조(俎)에 시육(豕肉), 작(爵) 1, 폐백 1 이다. 변 2 두 2(문묘 10월 석채)는 변에 조(棗) 두에 토해(兔醢) 조(俎)에 양육(羊肉)이 추가되고 4배위 석채는 작이 3이며 정위는 조(棗)대신 울(栗)이 양육과 시육대신 양

생과 시생이 올려진다. 변 4, 두 4는(문묘 10월 국자감 부주현 석전) 변에 형염(形鹽) 조(棗), 울(栗), 녹포(鹿脯)가 두에는 청저(靑菹), 녹해(鹿醢), 근저(芹菹), 토해(兔醢)와 화갱 1, 보 1, 케 1, 작 1이 되고 조에는 시육이다. 변 6 두 6 (문묘 4배위 부주현 석전)에는 변에 능(菱)과 고어(藺魚)가 두에 순저(笋菹)와 어해(魚醢)가 갱에 화갱 1, 조에 양육 1, 작 2가 추가된다. 그러나 국자감 석전 문묘배위에는 변 6 두 6이지만 갱에 대갱 1, 화갱 1이 추가되어 3갱 이 되고(등 1 형 2) 조에 양육, 시육 대신 양생, 시생이 된다. 변 8 두 8(문묘 정위 부주현 석전)에는 변에 검(芑)과 진(榛)이, 두에 구저(韭菹), 담해(醢醢)가 추가 되어 작 3 갱 3(등 1 형 2) 보 2 케 2, 폐백, 조 2(양, 생, 시생)가 된다. 변 10 두 10 (문묘 정위 국자감 석전)은 변에 백병, 흑병이 두에 비기(脾胘), 돈박(豚胎)이 생에 독(犢)이 추가 되며 작 3, 갱 3(등 1 형 2) 폐백, 조 3 (대퇴 1, 소

퇴 2)이 된다. 여기에 변에 구병(糗餅) 분자(粉糝)가 두에 이식(醢食), 삼식(糝食)이 추가 되어 변 12 두 12가 되면 당제(唐制)의 대사(大祀)의 형식이 된다. 당고종 무덕 2년(619)의 국학인 국자학(國子學)의 정위는 변 10 두 10 보 1 케 1 조 3 등 3 형 3이며 종사위는 변 2 두 2 보 1 케 1 조 1 이고 주현학은 변 8 두 8 보 2 케 2이다. 남송(南宋) 소흥 10년(1140)에는 변 12 두 12로 했고, 원 세조 지원 10년(1273)에는 석전의 정위에 변 10 두 10 보 2 케 2 조 6으로 하고 종사위(從祀位)는 변 2 두 2 보 1 케 1, 조 1로 했다. 명 현종 선화 12년(1476)에는 변 12 두 12로 했으나 명 세종 가정 9년(1530) 국자감에는 변 10 두 10으로 하고 주현학에는 변 8 두 8의 형식으로 했다. 청 성조 강희 22년(1680)에 가정예제에 일무(佾舞)를 증가시키고 변두수는 종전대로 하기로 했다. 이상의 내용들은 표 1, 2, 3에 요약 정리하였다.

〈표 1〉 석전의 규모에 따른 상차림의 분류

국가(시대)		제품			곡류				찬				전폐 (奠幣)	준(尊), 뇌(罍)			모혈 (毛血)	
		우 (牛)	양 (羊)	시 (豕)	보(籩) 稻	케(簋) 黍	대갱 (登)	화갱 (鬊)	변 (邊)	두 (豆)	회준	상준		산뢰 (현주)				
당 시 대	한 황제(146-167)	○	○	○													기록은 없으나	
	고종무덕 2년(619)																	예기의
	국자학 종향위 州縣	○	○	○	1(蒸)	1(蒸)	3	3	10	10				○	○	○		예기의 제례로
중 시 대	남송 시대																	
	소흥 10년(1140)									1	3	12	12					
국 시 대	원 시 대																	
	세조 지원10년 (1273)	○	○	○	2	2						10	10					
	종사위	○	○	○	1	1												
	성화 12년(1476)	○	○	○	1	1	3	3	12	12				○	○	○		
명 시 대	가정 9년(1530)개정	○	○	○	2	2	1	2	10	10				○	○	○		○
	국자감	○	○	○	2	2	1	2	12	12				○	○	○		
	삼재도해(1607) 府州縣	○	○	○	2	2	1	2	8	8				○	○	○		
청 시 대	성문예지(1691) 國子監	○	○	○	2(蒸) 湯煮熟	2(蒸)	1	2	10	10			무늬비단 (綾)	雲雷尊 초헌	象尊 아헌	犧尊 종헌		
	· 배위		○	○	1	1	1	2	6	6			○	○	○	○		
	· 十哲			○	1	1		1	4	4			○	○	○	○		
	府州縣			○	2	2	1	2	8	8			○	○	○	○		
부주현배위			○	1	1		2	6	6			○	○	○	○			

\* 위의 자료는 『문묘예악고』<sup>9)</sup> 『성문예지』<sup>8)</sup>에서 정리한 것임.  
고대 술의 종류로서는 범제, 제제도 이용하였음.

〈표 2〉 석전 진실도(중·한)

계기 구명	변	누	보	계	등	형	주			작	비고
							우	양	시		
							성	숙			
중	12	12	12	2	2	(변두 이하는 불명)					당제대사(唐制大祀), 상화예제(1476)
	10	10	2	2	1	2	1	1		3	문묘정위 국자감 석전의 (가정예제 1530)
	8	8	2	2	1	2	1	1		3	문묘정위 부주현 석전의 (상동)
	6	6	1	1	1	2	1	1		3	문묘배위 국자감 석전의 (상동)
	6	6	1	1	1	2			양육 시육	3	문묘배위 부주현 석전의 (상동)
	4	4	1	1	1	1			시육	1	문묘 10월(12월) 국자감 부주현 석전의 (상동)
구	2	2					1	1		3	문묘 정위 석채 (상동)
	2	2							양육 시육	3	문묘 4배위 석채 (상동)
	1	1							시육	1	문묘 양무(兩廡)석채 (상동)
	10	10	2	2	3	3	1	1		3	고려 문묘 정배위 국학 석전의
한	10	10	2	2	3	3	1	1		3	조선 문묘 정배위 국학(성균관) 석전의(극조오례의 1474)
	8	8	2	2			1	1		3	문묘 정배위 주현 석전의 (상동)
	2	2	1	1				1		1	석전 종향(從享) (상동)
	1	1								1	작헌문신양, 배위 종향위도 같다.(상동)
국	12	12	2	2	3	3	1	1		3	문묘 정배위 성균관 석전의 (1980 이후)
									우숙1 양숙1 시숙1		

〈표 3〉 변두수에 따른 내용물의 변화

변두수	녹포	조	울	형염	능	고어	검인	진자	백병	흑병	구병	분자	두수	청저	토해	녹해	근저	순저	어해	구저	담해	비기	돈박	이식	삼식
12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4	○	○	○	○										○	○	○	○								
2	○	○												○	○										
1	○													○											
우리나라에서는 변8 두8 이상에서는 중국 것과 같음.																									
4	○	○	○	○										○		○	○		○						(여제 성황, 주현 보제)
2	○		○											○		○									
1	○															○									

(6) 제수 조리는 청(淸)시대의 『성문예지』<sup>8)</sup>와 『문묘예악고』<sup>9)</sup>에서 대갱은 간을 하지 않은 쇠고기의 맑은 국물이며 쇠고기가 없으면 양고기로 한다. 화갱은 돼지고기등심을 얇게 저며서 쇠고기 국물에 삶아 건져내어 소금, 식초, 부추, 미나리를 버무려 그릇에 담고 돼지 신장(腎臟)을 여자(荔枝)모양으로 썰어 덮어 두었다가 쓸 때 쇠고기 삶은 국물을 부어 쓴다. 서반(黍飯)은 기장을 삶아 건져 낸 것, 직반(稷飯)은 메조를 이렇게 한다. 도반(稻飯)은 입쌀을 찐 것, 양반(梁飯)은 차조를 찐 것이다. 흑병(黑餅)은 메밀가루를 기름과 꿀로 반죽하여 꿀과 익힌 개암과 마름을 소로 하여 싸서 화덕에 말린 것, 백병(白餅)은 밀가루로 흑병처럼 하여 만든 것이고, 밤(栗)이 없으면 여지(荔枝)나 용안(龍眼)을 대신으로 쓴다. 고어(鰵魚)는 뱀어를 소금에 절여 말린 것, 즉 소금에 절인 어포(魚脯)인 것이다. 쓸 때는 술에 담그었다가 쓴다. 녹포(鹿脯)는 사슴고기의 덩어리를 술에 담그거나 소금, 산초, 간장과 함께 삶아 두었다가 쓴다. 사슴이 없으면 노루나 고라니 또는 양을 쓴다. 형염(形鹽)은 소금으로 호랑이나 산(山) 모양을 또는 밤, 대추모양으로 찍어 낸 것이고, 구저(韭菹)는 날부추를 소금에 습습하게 절인 것, 청저(菁菹)는 순무를 가늘고 길쭉길쭉하게 썰어 데쳐서 소금, 생강, 기름, 식초를 섞어 조미한 것, 순저(筍菹)는 마른 죽순을 소금물에 삶아 네모나게 썰어 소금, 생강, 기름, 식초로 조미한 것, 담해(醃醃)는 돼지등심을 갈게 썰어 소금, 술, 파, 산초, 시라(蒔蘿), 회향등과 섞어 담근 것, 토해(兔醃)는 토끼고기로 위와 같이 담근 것, 어해(魚醃)는 생선으로 위와 같이 담근 것, 돈박(豚胎)은 돼지의 앞다리고기를 큰 덩어리로 잘라 기름, 간장, 소금, 식초, 술등을 발라 찐 것, 비기(脾胄)는 소나 양의

체념을 가늘게 썰어 데쳐서 기름, 소금, 식초, 간장, 파, 생강을 넣고 다시 볶은 음식<sup>89)</sup>이다. 소가 없으면 양을 쓴다던가 하는 것은 그 지방에 나지 않은 것은 쓰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것을 경계하는 뜻과 같다(天不生地不養君子不以爲禮: 禮記 禮器).

2) 한 국

우리 나라의 석전의의 진설은 삼국시대의 것은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의 것은 고려사<sup>5)</sup>에 의해서 대략 찾아 볼 수 있다. 고려의 석전의는 춘추중월 상정일에 거행되고 정배위의 진설은 폐백, 모혈, 대갱 3, 화갱 3, 보 2, 궤 2, 변 10, 두 10, 생(牲) 1, 술은 제(齊) 2, 주(酒) 1이다. 보 2, 궤 2, 변 10, 두 10은 청(淸)의 『성문예지』<sup>8)</sup>와 같으며 생은 시생(豕牲)이며 제 2는 예제(명수), 양제(명수)이고 주는 청주(현주)가 있고 각각 명수와 현주가 곁들여 진다. 제수의 조리방법에 대해서는 고려사에 기재된 것이 별로 없다.

예안향교의 진설도<sup>18)</sup>에 의하면 부주현의 제례는 흥무예제에 따라 제물을 장만한다고 한다. 흥무예제는 지원예제(1273)의 제기를 도자기로 바꾼다(문묘예악고)라고 하니 고려, 조선 시대의 중요사직, 문묘 등의 예제는 지원예제에 기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성균관의 석전의는 춘추중월 상정일<sup>317)</sup>이며 친향석전의(親享釋奠儀) 향문선왕시학의(享文宣王視學儀)의 정배위의 진설은 폐백, 모혈, 대갱 3, 화갱 3, 보 2, 궤 2, 변 10, 두 10, 생(牲) 3, 조(俎) 3, 제 2, 주 1로 되어있다. 조 3은 우숙(牛熟), 양숙(羊熟), 시숙(豕熟)을 담은 것이며 생(牲) 3은 우성(牛腥), 양성(羊腥), 시성(豕腥)을 갑(匣)에 담아 조위에 놓으므로 생과 숙을 합해서 조 6인 셈이다. 술은 예제, 양제, 청주이며

각 각 명수와 현주를 위와 같이 결월이다. 이것은 고종 9년(1873)에도 이 제도가 준수되었다<sup>4)</sup>.

향교에서의 석전의인 주현 석전의(州縣 釋奠儀)의 정배위의 진설은 모혈과 갸이 없고 폐백, 보 2 켤 2, 변 8 두 8, 2 성으로 되어 있다. 성균관 석전의 보다 변에서 백병 흑병이 빠지고 두에서 돈박(脾胛)과 비석(脾析)이 빠진다. 생은 양성(羊腥)과 시성(豕腥)이다 3.16.18.19). 향교의 대성전이 성균관의 제도를 같이 하는 경주 안동 상주 같은 향교<sup>16)</sup>에서도 성균관과는 달리 모혈이 없는 폐백과 보 2 켤 2 변 8 두 8에 생 2로 제례하며 가장 낮은 현학(縣學)에서는 생은 돼지 한 마리로 하고 있다. 우숙과 양숙은 소와 양의 위장과 폐를 익힌 것이고, 시숙은 돼지 껍질 익힌 것이다<sup>19)</sup>. 백병은 쌀가루를 반죽하여 장방형으로 문친 것이며, 흑병은 수수가루를 백병처럼 만든 것이다<sup>4)</sup>. 녹포는 쇠고기에 소금을 뿌려서 다져 판처럼 하여 말린 쇠고기 편포이며 노루고기로서도 만들었다. 녹해는 사슴고기 대신 노루고기로 만들었고 담해는 옛날에는 저육으로 하였으나 숙종때 부터는 황소고기로 대신 했다. 어해는 승어(秀魚)로 만들었다<sup>45)</sup>.

경복 예안향교 진설도<sup>18)</sup>에 의하면 대갱은 소금을 넣어 간을 하지 않은 고기국(肉汁)이라 하고 화갱(和羹)은 형갱(羹羹)이며 날고기를 끓여서 오미(五味)를

조화시킨 것이며 나물로는 고비를 쓰고 여름에는 아욱(葵)도 쓴다고 하였다.

성균관은 孔紀 2541년(1990) 추기석전부터 상차림이 종묘대제의 규모와 같은 12 변 12 두로 바뀌었다.

현재 성균관 대성전의 정배위의 진설은 폐백, 모혈, 대갱 3 화갱 3, 보 2 켤 2, 변 12 두 12, 생 3, 조 3, 제 2 주 1로 되어 있으며 변에 분자(粉糝), 구이(糗餌)가 추가 되고 두에 삼식(糝食), 이식(醢食)이 추가 되어 당제(唐制) 대사(大祀)의 변두 수와 편성이 같다. 그러나 곡류의 도(稻), 양(粱), 서(黍), 직(稷)은 같으나 『고려사』<sup>15)</sup>의 춘추중상정석전의에 이변취서직반(以邊取黍稷飯共實一邊)으로 되어 있고 『국조오례의』<sup>3)</sup>의 향문 선왕시학의에 서직반강(黍稷飯降)으로 익힌 것으로 되어 있으나 『문묘의례집』<sup>2)</sup>에는 날곡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요약된 것은 표 4와 같다.

본 조사 자료를 설명하기 앞서 중국과 한국 석전의 의례중 진설과 제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중국에서 전수해 왔지만 그 중 몇 가지 검토가 따라야 할 것 같다.

첫째, 청의『문묘예악고』<sup>9)</sup>에서는 도, 양, 서, 직 중에 직(稷)을 속(粟)으로 하고 4곡을 飯으로 쓰고, 갡(羹)을 국자감과 부주현에 대갱 1 화갱 2로 썼으나 우리나라 『문묘의례집』에는 성균관 오성위에 대갱 3 화갱 3

〈표 4〉 석전의 규모에 따른 상차림의 분류

국가(시대)	생(牲)			곡류			찬			전폐(奠幣)	준(尊), 뇌(爵)			모혈(毛血)		
	우(牛)	양(羊)	시(豕)	보(籩) 稻 粱	쾌(簋) 黍 稷	대갱(登)	화갱(鉶)	변(邊)	두(豆)		희준	상준	산뢰(현주)			
한	고려사			○				2반	3	3	10	10	○			
	국조오례의(1474) 太常誌卷 4(1873)	○ ○,숙	○ ○,숙	○ ○,숙	2반	2반	3	3	10	10	○	○	초헌	아헌	중헌	○
	석전대제 종향위	○ ○,숙	○ ○,숙	○ ○,숙	2 반	2 반	3	3	10	10	○	○	초헌	아헌	중헌	○
국	文廟儀禮集(1990)															
	成均館 오성위	○ ○,숙	○ ○,숙	○ ○,숙	2	2	3	3	12	12	○	○	초헌	아헌	중헌	○
	종향위			○	1	1			2	2					1헌	
	鄉校 오성위		○	○	2	2			8	8	격에 따라 ○, ×	○	초헌	아헌	중헌	
종향위				1	1			2	2					1헌		
書院			○	1	1			4	4	격에 따라 ○, ×				3헌		



이고 부추현인 향교에서는 갱이 없다. 우리나라 『태상지』<sup>4)</sup>에서도 곡을 반(飯)으로 이용하고 있다. 일본 규슈(九州)의 多久 석체에서도 도, 양, 서, 직의 반(飯)으로 기록되어 있다<sup>7)</sup>. 그리고 어수(魚鱸)를 중국에서는 고어(藁魚: 말린고기)로 표현하고 작을 놓는 자리가 중국은 신위앞에 한국은 제상뒷편, 즉 제향자에서 가까운 곳에 놓는다. 중국에서는 토해(兔醢)를 변 4 두 4 이하에서도 쓰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녹해와 어해를 쓰고 있다<sup>4,19)</sup>. 그 외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도, 양, 서, 직에서 이름과 실물에는 중국에서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이용되고 있었다.

중국에서 농사가 본격화한 이래 호북성 이남의 장강유역에서는 '飯稻羹魚'라 하여 주로 稻가 전국시대 강남의 주된 양식작물이라 하고, 호북성 이북의 화북 지역에는 '黍, 梁, 稷, 麻' 등이 주곡이었고 중국문명은 북방에서 남으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稷은 곡신의 명칭인 후직(后稷)에 사용한 것은 수종(首種)과 무관치 않다. 현대 『辭海』, 『中華大字典』등과 일본의 『植物圖監』, 『英漢農業技術詞典』 등은 모두 稷을 黍로 해석하고 있다. 현대의 사서는 주로 명대의 식물학자인 李時珍의 『本草綱目』의 해설에 의존했기 때문이며 粘者爲黍 不粘者稷이라 분명한 해석도 내리고 있다. 즉 차기장은 黍, 메기장은 稷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稷이 粟이란 견해에서 송대 邢昺(爾雅)疏에서 "稷也粟也正是一物"이라 했으며 원대의 『農桑輯要』에서 『제민요술』의 "穀稷也名粟"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稷을 粟이라 규명했다. 특히 명대 서광계의 『農政全書』에서도 稷은 粟이 틀림없으며 이시진이 잘못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19)</sup>. 청대 桂馥의 『說文解字義証』중에서도 "稷粟一種 但二名耳"라 하여 稷을 粟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黍와 稷은 주곡작물로서 연청 또는 병열로 동시에 제시되어 있는 점에서 보면 분명 稷과 黍는 서로 다른 곡임을 알 수 있다. 稷과 黍는 속이 다르고 형태상의 차별도 현저하다. 춘추전국시대 이후 稷이 粟의 명칭으로 대체된 이후 다른 작물보다 음식물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 폭넓게 재배되었다. 전국시대 粟, 菽, 麥 등의 주곡중에서 가장 중시된 것은 역시 粟이며 이는 秦대 관부의 식량지급 규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sup>19)</sup>. 판본(版本)<sup>20)</sup>씨는 1978년 아프카니스탄의 답사에서 기장과 조는 새벽이로서 기른다는 사람이 많았고 전통식품으로 이용하고 있는 일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먹는 식품으로 사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북부 BC 500년경 황하유역의 문명을 이룩한 원동력이 기장과 조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중국의 도, 양, 서, 직의 직을 속(粟)의 일종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雅言覺非』<sup>20)</sup>에

서 '역어유해(譯語類解)의 훈(訓)에 폐(稗)를 피라 했는데도 우리나라 사람의 훈몽(訓蒙)에는 피직(稗)이라고 말하였으니 잘못이 이보다 큰 것이 있겠는가?' 라고 했고 稷은 피기장 俗謂 匪誤(物名)란 기록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사전에는 梁을 기장양, 黍는 기장 또는 메기장서이고, 稷은 피 또는 메기장으로 해석되어 있고

김<sup>5)</sup>: 梁米 = 粘粟米

김<sup>7)</sup>: 梁 - 기장, 黍 - 수수, 稷 - 피쌀

서<sup>6)</sup>: 梁 - 기장을 뜻하나 차좁쌀을 사용, 稷 - 피쌀, 黍 - 수수를 뜻하나 기장을 사용.

성균관: 梁 - 기장이나 요즘 차좁쌀을 사용, 黍 - 수수, 稷 - 피쌀

1998년 성균관 춘계 석전시에는 稻에 쌀, 梁에 청랑좁쌀, 黍에 수수쌀, 稷에 보리쌀을 쓰고 있다. 그러므로 곡류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달리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부추(韭)는 중국 은, 주시대 이래 제사 제물이나 부식으로 이용된 듯 하다. 천후(千畦)의 구(韭)를 재배하면 천후후(千戶候)에 비견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니 수요가 많았음을 반영한다<sup>19)</sup>. 『呂氏春秋』 本末篇에 "물에 사는 동물에게는 '비린내'가 나고 다른 짐승을 잡아 먹는 동물에게는 '누린내'가 나며 풀을 먹고 사는 동물에게는 '노린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냄새를 억제 해야만 맛을 낼 수 있다고 하여 부추도 파와 염교와 함께 곁드려 먹는 누린내나 노린내 제거에 한몫을 한 것 같다. 석전이나 종묘대제에서 필히 부추를 쓰고 있는 데 우리 나라 일반 제례에서는 훈채(薰菜)로서 제수에 쓰지 않는다. 일반제례에서는 한국전통의 제례민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앞에서 중국 석전제수를 소개한 바와 같이 중국석전은 청대에서 조미를 다양하게 하여 조리한 것인데 현재 한국의 석전에는 곡류는 생곡을 쓰고 대강과 형갱, 그리고 일부 떡(餅)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생의 식품을 쓰고 있고 녹포로는 쇠고기 위에 밥을 약간 없는 정도의 조리를 하고 있다. 물기 있는 것을 담은 두(豆)에 담은 음식은 원래의 이름은 지나 해로 그대로 남아 있고 담긴 음식은 다른 식품으로 남아있다.

### III. 조사결과 검토

본 조사를 위하여 중국 곡부의 석전이 우리나라에 전래한 후에도 가장 잘 보존되고 있다는 성균관의 춘계석전대전에 참석하여 조사하였고(1998, 3월 1일 10시 성균관 대성전) 그리고 성균관자료에 있는 지방의 향

교 234개교와 서원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6의 서원과 사우일람표<sup>21)</sup>에서 도별로 균등하게 임의로 선정해 각각 100부씩 설문조사 하여 표 5, 6, 7에 정리하였다. 특히 서원에는 관리인 부재로 대다수가 반송되었다.

향교의 오성위에는 변 8 두 8, 보 2, 케 2, 성 2, 주 3, 폐백이 진설되고 종향위에는 변 2, 두 2, 보 1, 케 1, 성 1, 주 1로 그 규모가 적어진다<sup>22)</sup>. 전국 향교에서 조사된 자료 38개소에서 분석한 <표 5>에서 정상의 규범대로 하는 곳은 김해 향교를 위시해서 창원의 영동, 충북의 영동, 충남의 남포, 전북의 임실, 전남의 곡성, 인천의 부평, 강원도의 인제, 전북의 김제 등 향교 25개 이상에서 성균관의 지시에 의해 대체로 격식에 준하여 운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표 5>에서 4곡을 다 쓰는 곳이 15곳, 2곡을 쓰는 곳이 23곳으로 지방향교가 보 2, 케 2 보다 보 1, 케 1을 더 많이 쓰고 있고, 4곡중에도 직(稷)의 향에 참쌀 2, 기장 6, 조 4, 직 3 등으로 가장 다양하게 기록하였다. 곡류를 여러번 씻어서 불려쓰는 곳(예천 향교 등)도 있다. 변 8에서는 형염을 쓰지 않은 곳이 2곳 있고 간혹 병(餅)을 한 두 가지씩 쓰는 예외의 결과도 볼 수 있었다. 완전히 익힌 떡으로 설명된 것으로 보아 석전후 음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8에 근저, 구저, 청저 등은 거의 빠짐없이 이용되는 제수이나 그 중 토해(토끼고기식혜)는 쇠고기로 대체하였으나 가장 이용도가 낮고 또한 녹해가 그 다음으로 낮은 반면 변두 12의 최고로 갖춘 제수인 비석, 돈박, 이식, 삼식 등의 이용도 1-4곳이나 되었다. 중국에서는 두 4에서도 토해가 많이 쓰이고 있는 제수였다. 생(牲)으로는 28곳에서 돼지머리를 쓰고 다음 돼지고기, 쇠고기순으로 썼으며 소머리는 38곳중 7곳으로 다소 귀하게 쓰이고 있다. 성생의(省牲儀)는 향사에 쓸 돼지를 검사하는 예(禮)로서 찬자(贊者)의 인도로 관계관들이 성생도(省牲圖; 생략)와 같이 서고, 축관은 서쪽을 향해 선 다음 오른쪽으로 3번 나아가 헌관 왼쪽에서 생단(牲壇) 위에 준비된 돼지가 정결한가를 묻는 뜻으로 “들”하면 헌관이 좋으면 “충”하면 의식은 끝나고 제물을 준비하게 된다. 이 의례는 중국 청대의 『문묘예악고』<sup>23)</sup>나 우리나라 『국조오례의』 등에도 기록된 것이나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곳(경북 비안향교 등)이 있다. 전남 곡성향교에서는 시성과 양성대신 통담으로 대응하고 있고, 곡은 4곡으로 격식을 갖추었으나 담해에 시금치를, 순저에 당근을, 토해에 콩나물을 쓰는 것 등으로 고래의 양식에서 벗어난 곳이 있다. 또 배(梨)와 감(柿)을 합해서 변 8 두 4로 쓰는 곳도 있다. 또 변 6 두 6(고령), 변 6 두 5(신향) 등도 있었고 영동향교에서는 4곡 중에 콩을 쓰고, 2곡을 쓰되 수수와 피, 또는 피와 기장등으로 쌀을 쓰지 않은

<표 5> 향교 오성위 신위 석전상차림(38개소)

제수				총 계
제기				
곡 류	보	도(쌀) 양(수수, 조)		35 29
	케	서(기장) 직(참쌀2, 기장6, 조4, 직3)		26 15
갑 조	삼 성	시성	돼지고기 돼지머리	23 28
		양성	양고기 양머리	12 8
		우성	쇠고기 쇠머리	18 7
		담(양성, 시성대용)		1
변(邊)	진자(개암:갓)		37	
	능인(마름:은행)		38	
	검인(가시연밥 : 호도)		37	
	녹포(노루포 : 쇠고기)		38	
	울황 피팜(친팜)		29(9)	
	건조(대추)		38	
	어수(건포), 돈배기, 대구, 명태		38	
	형염(소금)		36	
	백병(흰떡)		2	
	흑병(검은떡, 수수떡)		2	
	구이(경단, 유과)		2	
	분자(인절미)		2	
두(豆)	근저(미나리김치)		38	
	토해(토끼고기식혜)		28	
	순저(죽순김치, 도라지)		34	
	어해(물고기젓, 식해, 조기)		35	
	구저(부추김치)		38	
	담해(쇠고기장조림)		28	
	청저(무김치)		37	
	녹해(노루고기 식해, 쇠고기)		32	
	비석(소천염)		4	
	돈박(돼지고기)		3	
	이식(증편)		2	
	삼식(쌀가루에 고기 넣어 지진떡)		1	
준 또는 퇴	제 수	예제		24
		명수		4
		양제(청주)		14
		청주(청주)		34
		현주		4
비	폐백(무명2, 백지5, 모시15, 폐11)		38	
위 패 수	25위		22	
	27위		12	
	37위		1	
	39위 삼척향교외 2곳		3	

격이 낮을 때의 양식을 따르는 곳도 있었다. 폐백으로 무명, 백지, 모시 등을 쓰고, 위패수도 성균관의 위패수

〈표 6〉 향교와 서원의 제기 구비상태

제기명 조사수(개)	비(篋)	변(邊)	두(豆)	보(篋)	궤(篋)	갑(匣)	조(俎)	작(爵)	준(尊) 퇴(鼎)	점(沾)	평균
향교 38 (%)	29 (76)	32 (84)	35 (92)	30 (79)	29 (76)	14 (37)	31 (82)	32 (84)	20 (53)	29 (76)	28 (74)
서원 37 (%)	21 (57)	21 (57)	19 (51)	20 (54)	19 (51)	6 (16)	17 (46)	29 (78)	17 (46)	29 (78)	20 (54)

와 같이 39위를 모시는 곳도 3곳(강원도 삼척 향교 등)이나 있다. 그러나 25위를 모시는 곳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안동지역은 27위가 많았다.

향교와 서원은 제수나 제기가 같은 것으로 다만 변, 두의 수에 차가 있었다. 제기의 구비 여부를 설문한 결과 표 6과 같다. 향교보다 서원에서 제기 구비가 많이 부족하였고 또한 설문에서도 제기 구입에 애로가 많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두와 변, 그리고 작은 대체로 갖추어진 제기이고 향교에서는 조와 보, 궤가 그 다음으로 잘 구비되었으나 생을 담는 갑을 갖춘 곳은 (16%)로 아주 적었다. 폐백을 담는 비가 서원과 향교에서 57~76%를 상회한다는 것은 폐백을 그 정도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 같다.

### 1. 안동과 예안향교의 춘추 석전제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안동지역 2개의 향교를 검토하고자 한다.

경북지방의 향교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각 읍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43개처의 향교가 있었다고 하며(성균과 자료에는 41개처) 그 중 안동향교(1988년 복원)와 예안향교(1420건립 경북유형문화재 28호) 2개소를 검토하고자 한다.

향교의 구조는 공자 이후 중국 및 우리나라의 유학을 봉사(奉祀)하는 문묘와 교생의 강습소인 명륜당, 그리고 생도가 기거하는 동서재(東西齋), 생도의 침식과 공식에 이바지하는 주방과 창고로 되어있다. 즉 강학(講學)을 위한 학의 공간과 제향을 위한 묘(廟)의 공간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대성전(大成殿)은 묘의 공간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로서 대성지성문선왕공자(大成至聖文宣王孔子)를 위시한 제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향을 올리는 곳이다. 배위숫자는 지역의 실세에 따라 국가에서 배정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나 안동지역에서는 공자의 4성과 동서양쪽에 각 각 한국과 중국의 11현을 모시고 있으므로 총 27위가 된다. 원래 향교나 서원이 2가지의 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양반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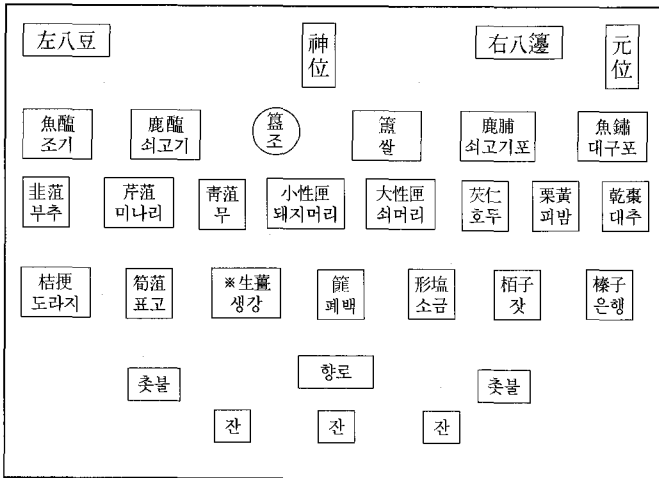
체의 교육을 위한 향교의 기능과 선현을 향사하는 사현(祀賢)의 기능이 그것이다. 그리고 교육기능이 위주이고 사현 기능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었으나 17, 18세기 이후 그 교육적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사현 위주로 전화하여 왔다. 오늘날 교육기능을 되살리려는 기운도 없지 않으나 향교에서는 석전의례가 서원에서는 향사의례가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되어 있다.

#### 1) 석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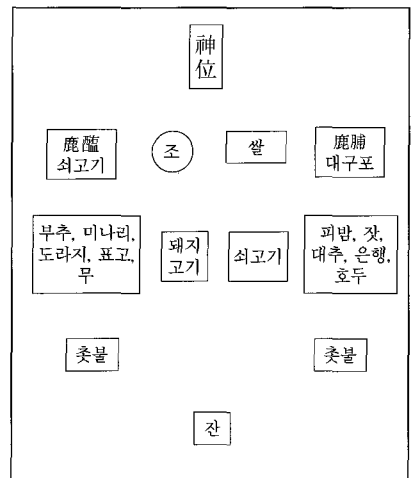
석전은 춘추중월상정(春秋仲月上丁)에 문묘에서 봉행하는 향례인데 석전대제는 오전 10시 성균관과 지방향교가 동시에 시작한다. 제례절차는 성균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무(舞)와 악(樂)이 없을 뿐 격식과 순서는 거의 같다. 석전 입제일 저녁 정한 시간이 되면 판진설(判陳設)이 제수의 진설을 완료한 다음 헌관들에게 “진설을 완료했습니다.”고 고한다. 헌관 이하 여러 집사들은 제관을 모시고 대성전 안으로 들어가 진설도와 대조해 가면서 이날날 아침 향사를 치를 모든 제수가 정확히 차려졌는지를 확인한다. 진설의 확인이 끝나면 문선왕신위앞에 헌관과 제집사자가 꿇어앉으면 대축이 헌관의 좌측에서 축문을 작성한다. 축문이 완성되면 헌관에게 축문을 보여 오류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한다. 완성된 축문을 축판에 담아서 향로상 밑에 놓아 둔다. 축문의 형식은 여타 향교와 같다. 간지(干支)는 단기(檀紀)로 쓰며 향례에 관한 제반 진설은 진설집사가 주관한다. 판진설은 전일 향례의 반차도(班次圖)에 의해 헌관위(獻官位), 제집사위(諸執事位), 참례자위 및 준소위(尊所位), 관세위(盥洗位), 음복위(飲福位), 망료위(望療位)를 설치하고 아래의 진설도에 의하여 예찬, 폐, 향, 축(禮饌, 幣, 香, 燭)등을 진설한다.

안동향교의 진설도는 그림 1, 2와 같다(1996년 3월 21일 10시).

향교의 석전제의 제기는 일반가정의 기제사에 쓰이는 제기와는 모양이 다르다. 안동향교는 폐백으로 흰 천을 비(篋: 폐백그릇, 그림 3-1)에 담지 않고 나무함에 담았으며(사진 1), 건과(모두 껍질채로 쓴다)와, 포



〈그림 1〉 문선왕신위 진설도



〈그림 2〉 동서·종향위(從享位) 진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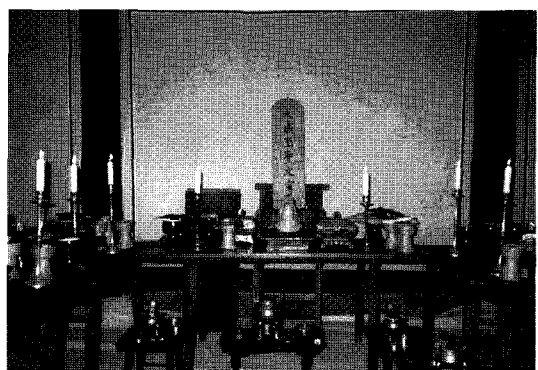
등은 모두 변(邊: 대나무제기, 그림 3-2)에 담아 변 8로 쓰고, 젓갈(醢)과 김치(菹)등은 두(豆: 불기있는 제수를 담은 제기, 그림 3-3)에 담아 두 8로 쓰고, 공자님이 생강을 좋아하셨다고 하여 다른 향교의 제물과 달리 생강을 한 그릇 놓고, 토해(兔醢) 자리에는 도라지를 쓰고 있다(진설도 그림 1). 예안 향교는 밤과 대추, 도라지와 표고등을 곁들려 담아 변 6 두 6으로 쓰고 있는 것은 제기 구비가 미비하여라고 한다(사진 2). 보(簋: 방형유기제기, 그림 3-4)에는 쌀을 담았으며 케(簋: 원형 유기의 제기, 그림 3-5)에는 차조나 기장 또는 좁쌀 중 한가지를 담아서 2곡을 쓴다. 전국 향교 조사에서도 2곡을 쓰는 곳이 더 많았다.

안동향교의 문선왕(文宣王)신위의 진설에 생(牲)으로 돼지머리와 쇠머리를 소성갑(小腥匣)과 대성갑(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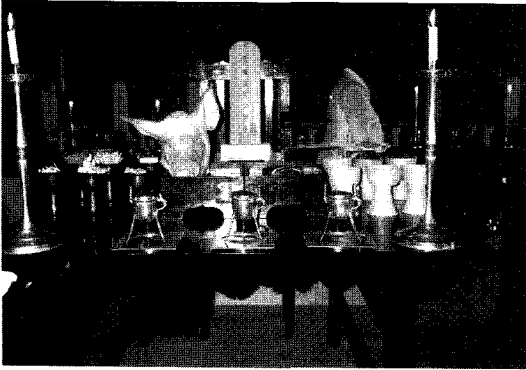
腥匣, 그림 3-6)에 담아 쓰고 사성(四聖)신위의 진설에는 조(俎, 그림 3-7)에 생으로 돼지머리와 쇠고기로 하였을뿐 기타는 같다(사진 3). 예안향교 진설은 생으로 돼지머리와 쇠고기를 문선왕신위에만 사용하고 변(邊)에는 대구포와 그 위에 쇠고기 날고기(포)를 놓고 대추, 밤등을 각각 담는다. 두(豆)에는 조기(어해), 미나리, 무, 부추등을 각각 놓는다. 작(爵)의 술잔은 대성전 문밖 양편에 각각 회춘(술향아리, 그림 3-8)과 작(그림 3-9)을 함께 상위에 놓아두나(사진 4) 작을 놓는 점(沾, 작이나 준의 받침, 그림 3-10)은 상차림 앞에 3헌을 놓을 자리에 설치한다. 문선왕의 사성과 동서 종향위(從享位)진설은 돼지머리 없이 모두 생으로 돼지고기를 썼으며 우변, 좌두는 포와 조기를 제외하고 한 그릇에 변에 대추와 밤, 두에 무와 미나리를 2가지씩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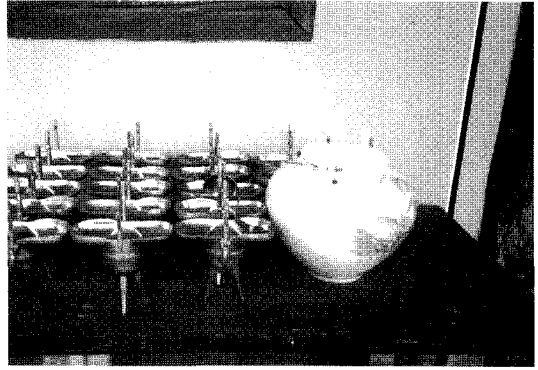
〈사진 1〉 안동향교의 문선왕 신위제수(우생, 시생, 페백)



〈사진 2〉 예안향교의 문선왕 신위제수(시생, 우성)



〈사진 3〉 안동향교의 4성위 제수(시성과 쇠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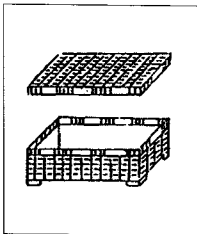
〈사진 4〉 예안향교 향사입구 좌측에 작 18개와 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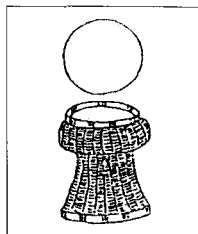
〈사진 5〉 예안향교 동서현의 2번 2두, 상(돼지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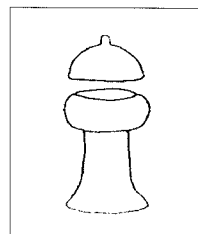
〈사진 6〉 안동향교의 호준과 술국자(옹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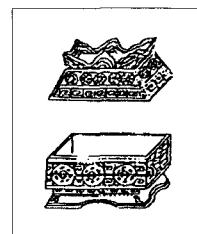
〈3-1〉 비(篋):폐백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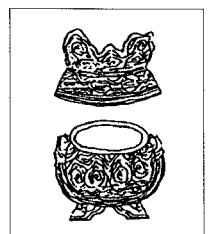
〈3-2〉 변(邊):건과,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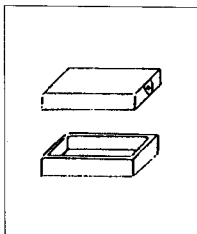
〈3-3〉 두(豆):김치(茹) 찻갈(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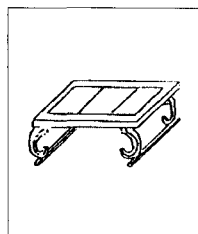
〈3-4〉 보(籩):도(稻), 양(梁)



〈3-5〉 궈(篚):서(黍) 직(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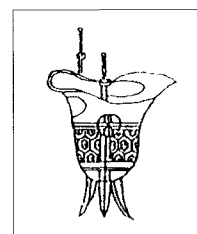
〈3-6〉 생감(牲匣):우, 양, 시를 놓는 나무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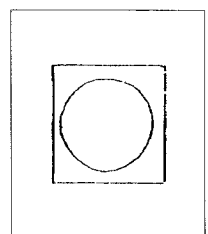
〈3-7〉 조(俎):적을 담은 그릇



〈3-8〉 산뢰(山醜):술항아리



〈3-9〉 작(爵):술잔



〈3-10〉 점(玷):작, 준의 받침

〈그림 3〉 향교와 서원의 제기

〈표 7〉 서원의 향사 상차림(37개소)

계기		제수	총 계
곡	보	도(쌀)	35
		양(수수, 조)	21
류	쾌	서(기장)	17
		직(피)	8
갑 · 조	삼 성	시성	8
		돼지고기	21
		돼지머리	2
		양성	1
		양고기	10
우성	쇠고기	8	
		닭	8
변	진자(개암:잣)		8
	능인(마름:은행)		11
	검인(가시연밥 : 호도)		9
	녹포(노루포 : 쇠고기)		31
	울황 피밤(친밤)		35(2)
	건조(대추)		32
	어수(건포), 명태포, 오징어포등		36
	형염(소금)		9
	백병(흰떡)		3
	흑병(검은떡, 수수떡)		1
구이(경단, 유과)		2	
분자(인절미)		4	
두	근저(미나리김치)		30
	도해(토끼고기식해)		5
	순저(죽순김치, 도라지)		10
	어해(물고기젓, 식해, 조기)		34
	구저(부추김치)		16
	탐해(쇠고기장조림)		11
	청저(부김치)		34
	녹해(노루젓 식해 : 쇠고기)		32
	비식(소천엽)		3
	돈박(돼지고기)		1
이식(중편)		1	
준 또는 되	계 주	예제	10
		명수	1
		양제	3
		청주	35
		현주	1
비	폐백(모시, 종이)		22
위 패 수	1위		11
	2-3위		19
	5위		2
	7위		3
	11위		2

드려 담아 변 2 두 2로 진설한다(사진 5). 술잔과 술향 아리는 <사진 6>과 같다. 향교의 석전제수는 익혀서 조

리한 것은 하나도 없다. 향교의 진설은 성균관의 지시도 있고, 또 예는 생활양식의 일부이므로 예찬(禮饌)도 향교규모와 경제적 영향 등 시의(時宜)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2. 서원의 성립과 향사(享祀)

### 1) 서원의 성립

옛날에 학문교육기관으로서 관학으로 중앙에 성균관과 사부학당(四部學堂) 그리고 지방에 향교(鄕校)가 있었으며 사학으로 서원과 서당 또는 정사가 있었다. 서원에는 선사(先師)를 제향하는 사우(祠宇)와 유학을 강학하는 강당이 있다. 서원은 선사를 제향하는 기능과 지방유생이 경학을 강학하는 장소이며 지방민의 도덕적 교화와 계몽을 하는 곳으로 향교와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sup>13)</sup>.

서원의 기원은 당(唐)말기에서부터 찾을 수 있으며 송(宋)의 주희(朱熹 1130-1200)는 백록서원을 열고 도학연마와 학문의 도장으로 후학을 가르쳤다. 서원은 과거제도와 연관되어 관학의 보조로서 원(元) 명(明)도 이 제도를 이어 왔다. 우리 나라는 고려말에서 조선 초까지 사우(祠宇)와 서재(書齋)의 기능이 분리되어 설립된 곳은 여러 곳 있었으나 이 두가지 기능을 겸한 중국서원과 같은 모양을 갖춘 서원설립은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 처음이다<sup>13)</sup>. 중종 36년(1541) 경북 순흥에 풍기군수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열고 안향(安珦 1243-1306)을 봉안(奉安)하였으며 명종 5년(1550)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황(李滉)의 상주로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의 개명과 아울러 편액을 하사 받았으며 사액서원(賜額書院)으로는 이것이 처음이다<sup>21,23,24,25)</sup>. 사립에 의해 설립된 서원에는 사액서원과 비사액서원이 있으며 사액서원은 조정에서 서원명칭을 부여한 현판과 서적 노비를 내리고 일정한 학전(學田)에 대한 세비면제 등 특전이 주어지는 국가공인의 서원이며<sup>21)</sup> 비사액서원과는 격을 달리했다. 서원은 지방관(地方官)의 지원 지방사람의 원조, 학전(學田)의 구입, 노비의 원속(院屬)등으로 제정적 기반을 구축하여 유지 운영되었으나 후기에 와서는 제정의 결핍으로 사우에 봉안된 선현(先賢)의 후손일문에 의해 운영 유지되는 일이 많아졌다. 서원에 유현(儒賢)을 봉안하고 향사(享祀)하는 것은 태학에 선사를 모시고 석전하는 뜻과 같은 것이며<sup>16)</sup> 향교에 문묘를 설치하고 전례(典禮)를 거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서원에 향사되는 선현은 처음에는 그 지역의 도학에 뛰어난 사표(師表)가 될 유현(儒賢)을 향사하고 지방사람의 유학의 연찬과 도덕의 발전을

일으키고 지방민의 유학에 의한 교화와 계몽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후기에 와서는 유현 이외에 충절인도 모셨고<sup>22,24,25)</sup> 높은 관직을 지낸 사람, 선치(善治)한 수령, 행의(行誼)있는 유생, 심지어는 귀하게 된 자손의 조상 제향 지향의 설립을 한다거나, 정쟁(政爭)에 희생된 인물의 신원(伸冤)의 뜻이 담긴 것 등 여러 가지 뜻에서 설립되었다<sup>23)</sup>. 그러므로 서원의 제향기능이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강화기능과 대민계도의 역할은 약화되어 제향위주로 발전해 가서 서원과 사우의 성격차가 모호해져 서원과 사우의 난립이 일어났다. 그래서 중앙의 봉당정치 발전은 중앙정치권의 지방서원에의 개입과 지방유생의 출세지향과 맞물려 서원을 중심으로 한 지방유생의 봉당화를 일으켰으며 서원의 양적 증가와 함께 여기에 따르는 사회적 폐단의 증대로 서원역제책이 강구된다<sup>22,25)</sup>.

서원설립이 왕성했던 숙종 때는 서원 381, 사우 276이나 되었다. 숙종 29년(1763)에 역제책이 강구되고 그 이후 간헐적으로 금령이 시행되었으나 큰 효과는 없고 고종 1년(1871) 일인일원(一人一院)의 원칙과 정비로 서원 417, 사우 492개소이던 것을 구한말 大院君이 집권(1741)하면서 많은 서원과 사우가 훼손되어 서원 27, 사우 20개소가 남게 되었다<sup>22,25)</sup>. 이와 같이 훼손된 서원은 지방유림과 봉안된 선현의 후손들에 의해 향사를 지내 오다가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과 더불어 일부는 재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원이 문중에 의한 제정적 관리와 제향우위로의 발전 그리고 학문강화의 퇴조는 제향을 중심으로 한 서원운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따라서 서양문물의 유입으로 학문의 가치적 변화는 서원의 기능이 향례가 중요구실을 하게 된다.

## 2) 서원의 제향(祭享)과 제수(祭需)

향교나 서원의 사헌(祀賢)은 선사(先師)를 제향하는 전례(典禮)이고 옛날의 선사에 대한 석채(釋菜)와 같은 것이며 일반 제례와는 다르다. 서원 향사(享祀)때의 제문(祭文)에 한결같이 선사 아무개라고 적혀 있다. 개중에 간혹 선생(先生)이라는 호칭이 섞여 있다. 제향일은 기일제(忌日祭)가 아니며 춘추 3월과 9월(음력)의 중정일(中丁日)의 하루를 택하여 치제하는 것이 대다수이나 춘추 두 차례 하는 곳도 있고 춘추 중월이 아닌 달의 상정일이나 춘추중월의 상정일이 아닌 중정일이나 3월이나 9월의 하정일을 택해서 하는 곳도 있다<sup>16)</sup>. 춘추중월상정일(春秋仲月上丁日)이 분묘의 석전일(釋奠日)인 까닭에 이날을 피 하는 것 같고 상정일이나 하정일은 주향자(主享者)의 생전의 사회적 신분을 감안하여 제일을 정한 것 같다. 즉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sup>3)</sup>의 사대부사중월시향의(士大夫仲月時享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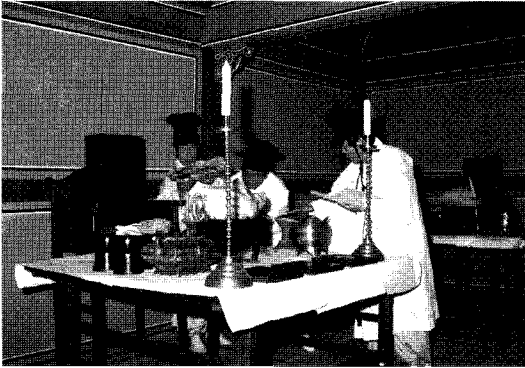
는 2품이상은 상순, 6품이상은 중순, 7품이하는 하순에 제향을 올리도록 되어 있다. 본 제수에는 모혈이 없다. 폐백(幣帛)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sup>18,24,26)</sup>. 같은 사액서원(賜額書院)일지라도 옥산서원(玉山書院 李彥迪)에는 전폐례(奠幣禮)가 있으나 도산서원(陶山書院, 李滉)에는 전폐례가 없다<sup>24,26)</sup>.

향교나 서원의 제찬은 곡물이나 지나 할 것 없이 비교적 조리되지 않은 식품상태로 쓰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기<sup>10)</sup>에 예라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서 옛것을 배우고 닦아서 그 시초를 잊지 않음이다(禮也者 反本脩古不忘其初 (禮記 禮器))라 하였다.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옛날의 관례를 존중하여 제례에 예주(醴酒)나 현주(玄酒)를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석전의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적 제례를 주관하던 향교에서도 이와 같은 뜻을 존중한 것으로 보이며 예안향교의 진설도(陳設圖 1579)<sup>18)</sup>에 모든 제사의 제물은 아무것도 없던 시절대로 쓴다.(凡祀神之物當時所無者 以時代之 (陳設圖))라 하고 있다. 향교의 석전이나 서원의 향사나 제향하는 사람들은 그 지방의 사림(士林)이며 동일한 사회기반위의 구성원으로 되어있다. 향교나 서원이나 다 같이 선사(先師)를 모시고 석채(釋菜)를 하는 것이므로 제찬도 같은 모양으로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전국 서원의 조사결과는 <표 8>과 같으나 서원은 변 4 두 4, 생 1, 보 1, 궤 1, 작 3, 전패(하지않은 곳도 상당수 있음)로 간편한 제수마련이지만 그 규범과 격식은 향교에 준해서 시행하고 있다.(예, 안동도산서원등, 사진 7). 서원에서도 선사를 1위에서 최고 11위까지 모시고 향교석전예에 준해서 제기나 제수를 마련하고 있다.

## 2) 안동지역의 서원 및 사우의 춘추향사의 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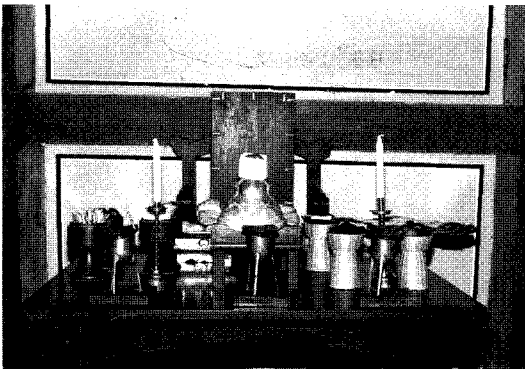
안동지방 서원 및 사우는 현재 총 56개중 사액이 7개 있고(96년 안동민속박물관 조사), 향사를 올리는 곳으로 조사된 것이 21개소로서 전체 서원의 반에도 못 미치지만, 향사를 올리는 곳에서는 종전과 같이 서원 의례를 그대로 행례하고 있어서 유교문화의 본향인 안동을 단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도 같다. 서원 향사의 절차를 익히는 것이 당시 사림들 사이의 필수 교정(教程)이었음을 전하고 있다. 향사날짜가 겹칠 경우 해일(亥日)로도 행하며 3월과 9월은 초정일을 택해도 무방하다. 안동지역 향사 제수를 조사한 결과 <표 8>과 같다. <표 8>에서 제향하는 서원 21개소중에 신위 1분을 모시는 곳이 11곳, 그 외는 2위에서 4위까지 모시고 있다. 그러므로 현관의 수도 3인-5인까지 각기 신위수에 따라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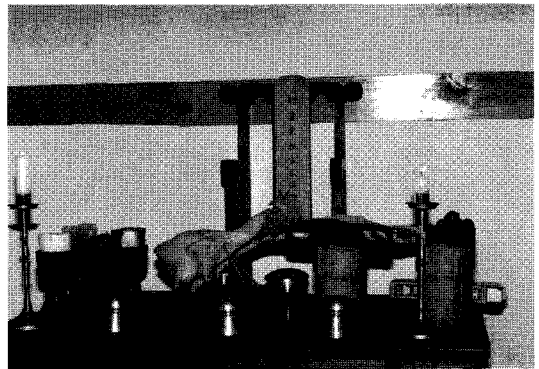
〈사진 7〉 도산서원 진설도를 보고 제물확인중



〈사진 8〉 소수서원의 제물(변, 두 대용의 백자그릇) 밀가루를 문힌 쇠고기를 녹포라 함(앞에 놓인 것)



〈사진 9〉 고산서원 진설



〈사진 10〉 벽개서원 진설



〈사진 11〉 명호서원의 일반 유교식 제수

안동지역 서원의 제수는 문묘나 향교처럼 변두, 보 케로서 생은 시생(豕牲)이며 변 4, 두 4, 보 1, 케 1이며 술은 현주를 곁들이지 않은 청주를 쓴다. 서원향사에서는 대다수가 시생을 쓰고 있으나(사진 8, 9) 닭을

쓰는 곳도 있다(사진 10). 이것도 생전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변 4는 조(藜), 울(栗), 녹포(鹿脯), 어수(魚鱠)로 물목(物目)에 나와 있으나 녹포는 쇠고기 즉 육포로, 어수는 대구포를 쓰고 있다. 두 4는 녹해(鹿醢), 어해(魚醢), 청저(菁菹), 근저(芹菹)로 되어 있다. 녹해는 쇠고기 날 것 썰은 것을, 어해는 생선조기를, 청저는 날 무를 길죽하게 썰은 것을, 근저는 미나리 줄기 날 것을 쓰고 있다. 청저대신 구저(韭菹) 즉 부추를 쓰는 곳도 있다. 구저는 부추의 두미(頭尾)를 절거(切去)하고 묶은 것이다. 역사 깊은 서원에서 구저대신 움파를 단으로 묶어 쓰고 있는 곳도 있었다. 보 1 케 1에는 입쌀과 기장쌀을 생곡 또는 익힌 것을 쓰며 기장쌀대신 좁쌀을 쓰는 곳도 있다. 서원 중 몇몇 곳에서는 이와 같은 석채 양식이 아닌 일반 제사 제수 진설과 같이 하는 곳이 표 8에서 제시되어(사진 11) 있다.

이러한 제수를 쓰는 서원은 주로 친조상만 모시고 묘향(廟享) 또는 세덕사(世德祠)<sup>27)</sup>라 한다. 또한 서원



〈표 8〉 안동지역 서원향사의 배향인과 제향시간 및 제수

연번	서원	배향인물	제향시간 (사액년도)	곡류	변(邊)		두(豆)		생(牲)	비고
					포, 과	해, 저(藎)				
1	경광서원 (鏡光書院)	배상지(裴尙志) 이종준(李宗準) 권우(權宇) 장흥효(張興孝)	아침	조, 쌀	밤, 대추, 대구포	무, 미나리, 조기, 쇠고기.		돼지머리	제물은 익히지 않고, 날것으로 한다.	
2	고산서원 (高山書院)	이상정(李象靖) 이광정(李光靖)	자정후	기장, 쌀	밤, 대추, 대구포, 쇠고기포	무김치, 미나리김치, 조기, 쇠고기		돼지머리	녹포(鹿脯)와 녹해(鹿醢)는 요즘은 쇠고기를 쓴다.	
3	도계서원 (道溪書院)	권위(權暉)	자정후	기장, 쌀	밤, 대추, 대구포, 쇠고기포	구저(藎菹), 청저(菁菹), 조기, 쇠고기		닭	조, 쌀은 9번 손을 넣지 않고 씻는다. (浙米) 어해는 조기를 쓴다.	
4	도산서원 (陶山書院)	이황(李滉) 조목(趙穆)	자정후 (1575년)	기장, 쌀	대추, 잣, 대구포, 쇠고기포	무, 미나리, 조기, 쇠고기		돼지머리	정위 жат은 껍질을 벗기지 않는다. 무는 껍질을 벗겨 작은토막내어 쓴다.	
				기장, 쌀	대추, 잣, 명태포, 쇠고기포	무, 미나리, 조기, 쇠고기		돼지머리		종사위
5	동산서원 (東山書院)	천만리(千萬里) 조선중기 명나라에서 귀화한 무신	자정후	기장, 쌀	밤, 대추, 대구포, 쇠고기포	근저(미나리), 청저(무), 조기, 쇠고기		돼지머리	진사 대신 밤을 씹 양미는 기장으로 함.	
6	벽계서원 (碧溪書院)	강봉문(姜鳳文)	자정후	조, 쌀	밤, 대추, 대구포, 쇠고기포	무, 미나리, 조기, 쇠고기		닭	생닭은 대나무가지로 몸을 세우고 머리는 동쪽으로 가게한다.	
7	병산서원 (屏山書院)	류성룡(柳成龍) 류진(柳稔)	오전7시경 (1863년)	조, 쌀	밤, 대추, 어포, 쇠고기포	미나리, 무(菁菹), 부추(菹菹), 조기, 쇠고기		돼지머리	정위 초헌관은 당상관의 자주색 관복에다 사모를 쓰고 목화를 신고 홀기를 든다.	
				조, 쌀	밤, 대추, 쇠고기포, 어포	무, 미나리(菁菹), 조기, 쇠고기		돼지머리	종사위 다른 헌관은 당하관의 남색관복을 입고 이와 같이 한다. 기타 참석자는 도포와 유건을 쓴다	
8	봉암서원 (鳳巖書院)	남응원(南應元) 남용달(南隆達) 남금(南磻) 남천한(南天漢)	자정후	기장, 쌀	밤, 대추, 대구포, 쇠고기포	미나리(菁菹), 부추(菹菹), 식해, 조기, 쇠고기		돼지머리	초헌관은 사모 붉은색 관복, 목화, 홀기, 아헌, 중헌, 집례는 흥배가 있는 붉은색 관복.	
9	분강서원 (汾江書院)	이현보(李賢輔)	자정후	조, 매기, 장, 차기, 장, 쌀	대추, 잣, 녹포, 어수	구저(藎菹), 청저(菁菹), 녹해, 어해		돼지머리		
10	서산서원 (西山書院)	이색(李穡) 이홍조(李紅祚)	자정후	기장, 쌀	대추, 밤, 대구포, 쇠고기포	무, 미나리, 조기, 쇠고기산적		닭	녹해(鹿醢)는 쇠고기산적을 쓴다. 곡류는 정성껏 씻고 닭과 생선의 머리는 서쪽 배는 북쪽으로 가게 한다.	

연 번	서 원	배향인물	제향시간 (사액년도)	곡류	변(邊)		두(豆) 해, 저(菹)	생(牲)	비 고
					포, 과	최고기포			
11	역동서원 (易東書院)	우탁(禹倬)	오전 11시 (1684)	반 (기장밥, 쌀밥)	밤, 대추 대구포 쇠고기포	무김치, 부추 김치, 조기, 쇠고기	돼지머리	반은 9번 씻어 살짝 쪄음	
12	용강서원 (龍岡書院)	최치원(崔致遠)	자정후	조, 쌀	밤, 대추 대구포 쇠고기포	무, 미나리 조기, 쇠고기	돼지머리	조와 쌀 9번 정성스레 씻는다.(洗米公事)	
13	유암서원 (流巖書院)	이정백(李廷栢)	자정후	기장, 쌀	밤, 대추 대구포 쇠고기포	무, 미나리 조기해, 쇠고기해	닭	닭다리를 한지로 묶어 조 대위에 놓음	
14	임천서원 (臨川書院)	김성일(金成一)	자정후 (1908복위)	조, 쌀	밤, 대추 쇠고기포	무, 미나리 대구포 돼지고기, 명태	닭	곡류는 9번 씻는다.	
15	창열서원 (彰烈書院)	하위지(河緯地)	아침 7-8	기장, 쌀	밤, 대추 대구포 쇠고기포	부추, 미나리 조기, 녹해	돼지머리	당일아침에 기장과 쌀은 9번 씻음	
16	청성서원 (靑城書院)	권호문(權好文)	자정후	조, 쌀	밤, 대추 대구포 쇠고기포	부추, 미나리 조기 쇠고기해	닭	곡류 9번 씻음 생닭 막대기로 날개와 머 리를 세운다. 조기머리 동쪽, 배는 북쪽	
17	타양서원 (陀陽書院)	손홍량(孫洪亮) 김자수(金自粹) 류중암(柳仲淹)	자정후	조, 쌀	밤, 대추 대구포 쇠고기포	무, 미나리 조기, 쇠고기해	닭	닭, 포, 머리 서쪽, 조기 토막지어 놓음	
18	기양서당 (岐陽書堂)	류복기(柳復起) 류의손(柳義孫)	자정후	기장, 쌀	대추, 은행, 대구포	미나리, 부추, 조기, 쇠고기식해	없음	복을 치면서 “행사 아뢰 오”를 3번 외친다. 간장 을 놓는다.	
19	명호서원 (明湖書院)	이원(李原) 이주(李冑)	오전 10-11시	갱, 메, 면, 3탕, 편, 꿀, 편적, 두부전, 도적, 백채, 흑채, 청채, 김치, 식혜, 대구포, 조, 울, 이, 시, 조과, 잠과, 참과, 회(膾), 간장, 술					
20	용계서원 (龍溪書院)	김언기(金彦幾) 권대기(權大器)	오전 10시	반, 갱, 국수, 편, 도적, 계란, 2탕, 청채, 고사리, 백채, 조기, 대구포, 밤, 수박, 딸기, 참외, 사과, 꽃감, 배, 대추, 술					
21	은곡서당 (隱谷書堂)	박진(朴進) 년1회	아침 8시	밥, 국, 국수, 편, 3탕, 소과(蔬果 4색과), 포, 술, 해(밥식혜), 회(膾)는 마 지막에 진설. 지방을 주독뚜껑 열고 붙여쓴다. 축 문은 분축(焚祝)한다.					

특유의 제수를 쓸 수 있는 것은 서원에 모시는 제신(祭神)에 대하여 유럽에서 공론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각 서원에 회람을 하여 인준을 받아야 서원향사를 할 수 있다. 일반제례 서원은 제단에서 제수를 진설하고 축문에 제신(祭神)을 전사가 아닌 선생으로 부르고 있다(명호서원, 이원, 좌명공신, 좌의정).

서원 21개소에서 향사를 올리고는 있으나 제수는 서원 2곳, 서당 1곳이 일반 유교식 기제사의 제물과 같으며 제례 순서도 일반제사 제례와 같았다. 그러나 그 외 18개의 서원은 곡류인 좁쌀(籔), 쌀(籩)을 쓰고 대추, 피밤, 대구포, 쇠고기포를 왼쪽 변 4에 놓고, 조기, 쇠고기, 무, 미나리를 오른쪽 두 4에 놓고, 생(牲)으로 돼지머리를 쓰는 서원이 12곳(도산서원은 2위에 각 1마리),

닭쓰는 곳이 7곳이나 있다. 신위수가 2사람 이상일 때 원위에는 3헌작을 하나 중향위를 따로 모시는 신위에게는 청주 1헌작으로 한다. 곡류는 모두 날곡으로 쓰지만 역동서원에서 조와 쌀을 9번 씻어서 살짝 찌서 쓰고, 그 외 창열서원등과 같이 당일날 아침에 곡류를 7-9번에 씻어 정갈하게 정성을 드러 만들어 쓰는 곳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세미공사(洗米公事)라 한다. 제물은 거의 대부분이 전혀 불을 쓰지 않는 날 것이므로 여자들의 손이 필요도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여자는 서원에 임문을 시키지 않고 있다. 닭을 막대기로 머리와 날개를 세워서 머리가 동쪽으로 향하게 하기도 하고(청성서원) 또 닭다리나 돼지 입에 한지로 근봉(謹封)을 두른 곳(사진 9)도 있다. 제향시작은 자정이후 지내

는 것이 14곳, 오전 중에 지내는 7곳등 2가지 형을 이루고 있다. 또 춘추향사도 년 1회로 줄인 곳도 있다. 그 외 모든 향사 철자는 석전의 향사 규모보다 다소 적을 뿐 그 규범은 석전과 같이 엄격하고 세분화되어 대체로 그 의례가 아직도 일부 서원에서 잘 전승되고 있다.

#### IV. 맺는말

文廟에서 孔子에게 제향하는 의식인 석전은 한 항제(146-167)때 3생(牲)을 중심으로 행해 하던 것이 당의 고종 무덕 2년(619)에 제례규모를 갖춘 국가학을 시작으로 명과 청대를 거치면서 큰 변화 없이 전승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문화혁명에 의해 석전은 “국제공자문화절”의 명칭으로 공자의 탄신 기념집회로서 9월 28일 고제공악무중심(古祭孔樂舞中心)의 행사로 이행되고 있으나 최근 다시 공자의 사상적 적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고려시대 그 정신을 숭모하기 위하여 전래해 와서 오늘날 성균관에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그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서 중요 무형 문화재 85호로 지정되었다.

향교의 석전과 서원의 향사를 조사 검토한 결과

1. 향교의 석전이나 서원(또는 사우)의 제전(祭典)은 선사(先師)에 대한 경의의 표시인 제례이며 예기(禮記)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은 규범에 따르고 있다.
  2. 석전은 중국의 왕조와 시대의 변천에 따라 격식이 달라지기도 했으나 지원예제를 기본으로 한 가정예제(嘉靖禮制)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여기에 따라 전례가 거행되고 있다.
  3. 중국 국가감의 석전에 정위의 진설은 폐백, 모혈, 10 변 10 두, 갱 3(등 1 형 2) 보 2 켜 2 조 3(태뢰 1 소뢰 2) 주 3이고 주현학에서는 변 8 두 8이었다.
- 우리 나라에서는 『태상지』가 편집된 한말까지(1873) 문묘는 폐백, 모혈, 변 10, 두 10, 등 3, 형 3, 보 2, 켜 2, 조 6(성(腥) 3, 숙(熟) 3) 주 3이고 현학인 향교에서는 모혈이 빠지고 폐백 변 8 두 8 보 2 켜 2 조 2(생) 주 3으로 되어 있었다. 전국 조사향교의 대다수가 이에 준하고 있었으나 보와 켜는 줄여서 38개 조사 향교 중 23개 향교가 보 1 켜 1로 바뀌었고 4곡은 15곳뿐이고 변, 두의 수와 종류에서도 다소 변화를 보였다. 1990년 성균 관에서는 대사규범인 12 변 12 두로 바꾸었다. 향교에서의 전례는 향교의 격에 따라 없는 곳 이 있다. 중국 청대 성문예지의 상차림은 곡류를 찌거나 끓여 익힌 것이고, 우리나라 「고려사」에서 서적의 밥과 『태상지』석전대제에도 곡류를 밥(飯)으로 하고 있으나, 성균관의 석전은 곡류를 날곡으로 쓴다. 또한 중국 청대

석전의 저(菹)는 모두 조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성균관과 향교, 서원은 저를 식품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전발(역동서원)과 불린 쌀(의성 비안 향교)을 쓰는 곳은 있었다.

4. 서원의 제례는 폐백(없는 곳도 있다), 보 1 켜 1 조 1(생) 변 4, 두 4, 주 1로 3현을 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였고 향교나 서원의 제례 순서나 격식은 성균관의 석전의례와 대동소이하나 악과 무, 그리고 모혈, 갱이 없고, 생은 소뢰 한 가지로 하고 변 4 두 4로 수가 적다. 향례를 하지 않은 서원이 안동지역 서원 56개 중 35개 서원으로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변두에 담은 제찬의 이름은 옛날 그대로이나 재료와 조리법이 적절히 변형된 것이 있다.

5. 서원에서도 일반 유교식 제례 제수로 제단에서 제향하는 묘향(廟享)이 있고, 이러한 서원의 축문에 제신(祭神)은 선사가 아닌 선생으로 호칭한다.

6. 제기의 구비상태는 향교 74%, 서원 54%로 향교가 제기를 더 많이 구비하고 있다.

석전진설도에서 병(餅) 또는 자(饗) 식(食)의 떡종류가 밀가루가 아닌 곡물의 떡이었으므로 중국의 떡은 밀가루가 위주란 것과는 거리가 있는것 같아 이에 대한 의문을 갖고 중국에서 조사한 결과 중국은 회하(淮河)를 기준으로 제배조건인 지리적여건이 북방지역은 주로 소맥을, 남방지역은 쌀이 위주로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떡의 재료도 북방은 밀가루와 잡곡이 위주이고 남방은 쌀, 찹쌀등 곡류가 위주가 된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예전에 주로 중국 북방과 왕래가 잦았기 때문에 중국의 떡은 밀가루가 본위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본다. 오히려 중국에서도 보통 떡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쌀로 만든 것이 많았다. 중국의 떡을 나타내는 고(糕=饅)에 쌀 “米”가 있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중국의 가장 보편적인 떡중 하나는 년고(年糕)라는 중국 설날 먹는 설떡도 조리법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찹쌀을 사용하고 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남방지역에는 우리나라 전통음식과 비슷한 떡국(水磨年糕)과 기주떡, 찰떡, 식혜(단술)등의 조리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재료와 이용도가 거의 같은 것이 있었다. 2차(1998. 7월중) 사천성의 성도 답사에서 중국이 약 2200년전 최초로 관개에 성공한 거대한 도강언(都江堰)이란 방죽과 넓은 평야를 보고 비로소 이곳이 중국 전체에서 가장 큰 수도작의 곡창 지대임을 한 눈에 읽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곳 음식중에 찹쌀편, 찹쌀경단, 인절미 등의 샤오즈(小吃)라는 많은 음식을 먹어볼 수 있었다. 중국 동북지방에서는 수수, 옥수수, 좁쌀, 기장등의 가루를 이용해서도 떡을 만들고 만주지방에서는 차좁쌀을 사

용해 떡을 많이 만들어 먹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석전의 찬품에서 얻은 결과이다.

중국은 숫자관에서도 우리 나라와 달리 우수를 선호하며 1년 12달 늘 무사하라고 12 라는 숫자를 행운의 숫자로 생각한다고 하며 駱承烈교수와의 대담에서 혼수나 신혼여행 때 주는 돈은 12元 또는 120元을 주는 민속이 있다고 하니 상차림에서 최고로 갖춘 12 변 12 두를 쓰는 것도 1년 십이지(十二支)와 행운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추정해 본다.

■참고문헌

- 1) 조선제사상속법론, 조선총독부중추원, 국학자료원, 1994
- 2) 문묘의례집, 성균관, 1995
- 3) 國朝五禮儀, 1474, 민창문화사, 1994.
- 4) 이근명, 태상지, 1873, 수학사, 1992.
- 5) 김상보, 조선왕조의 제사음식문화, 수학사, 1996.
- 6) 서혜경, 문묘제례음식, 서울민속대관 9, p.429-444, 서울특별시, 1995.
- 7) 김천호, 儒敎飲食文化研究 - 韓·中·日의 釋奠祭 調査, 한국식문화학회지12-2, p.155-172, 1997
- 8) 孔令貽, 聖門禮誌, 1716, 공자문화출판공사, 1989
- 9) 金之植, 文廟禮樂考, 1691, 공자문화출판공사, 1989
- 10) 예기, 명문당, 1993
- 11) 국조오례의 서례, 1474, 민창문화사, 1994.
- 12) 중문대사전, 중국문화대학출판부, 1973
- 13) 원색세계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83
- 14) 한국인명대사전, 신구문화사, 1979
- 15) 정인지 외, 고려사, 1451, 영인본
- 16) 경북향교지, 영남대학 문화연구소, 1991.
- 17) 경국대전, 1471 보경문화사, 1995
- 18) 경북향교자료집성(I, II, III), 영남대학 출판부, 1992.
- 19) 최덕경, 戰國, 秦漢시대 음식물의 材料, 考古歷史學 志 卷10, 11, 合, 1996 .
- 20) 金鍾權 역주: 丁若鏞「雅言覺非」 1819, 一志社, 1976.
- 21) 阪本寧男 : 雜穀の ぎだ道, 日本放送出版協會, 1988.
- 2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6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웅진출판주식회사, 1991.
- 23) 석전대전, 성균관, 1998
- 24) 안동의 서원향사, 안동시립민속박물관, 1996
- 25) 안동의 서원, 안동문화원, 1994.
- 26) 정만조, 조선시대서원연구, 집문당, 1997
- 27) 丁淳睦: 韓國書院教育制度研究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9